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소공동체 모임 순서

소공동체 봉사자는 모임 순서를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
소공동체 모임 시작 전에 매월 둘째 혹은 셋째 주일의 복음나누기 중에서 미리 선택한다.

1. 시작성가

▶ 소공동체에서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시작성가를 안내한다.
| 진행자 | : 성호경 /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성가()번()절을 노래하겠습니다.

2. 인사 나누기

▶ 전입자나 처음 나오신 분 또는 특별참석자가 있는 경우에 소개한다.
| 진행자 | : 각자 소개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3. 전 모임 기록 낭독

| 진행자 | : 지난번 반회의록을 낭독해 주십시오.

4.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

▶ 소공동체가 선택한 주일의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에 따라 진행한다.
| 진행자 | : 길잡이에서()주일의 복음나누기 부분을 펴 주십시오.
(모두 펴면)

[1] 주님초대하기

[2] 하느님 말씀

- 1) 복음말씀을 읽는다.
- 2) 침묵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 3) 마음 안에 들려 온 말씀을 나눈다.

[3] 한 걸음 더 나아가기

[4] 생명의 말씀 정하기

[5] 말씀 살기

- 1) 지난 달 실천사항 나눔
- 2) 이번 달 실천사항 논의

[6] 마침기도

5. 궁금했어요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 진행자 | : ‘궁금했어요’ 부분을 펴 주십시오. (모두 펴면)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6. 기타토의 및 공지사항

| 진행자 | : 우리 소공동체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토의 할 사항을 나누겠습니다.
| 진행자 | : 본당 공지사항과 구역·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 차기 모임장소와 날짜 정하기

▶ 다음 모임의 장소를 제공할 세대와 날짜를 정하고 기록한다.
| 진행자 | : 차기 모임 장소와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8. 소공동체를 위한 기도

| 진행자 |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다함께 ‘소공동체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9. 마침성가

▶ 반장은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마침성가를 안내한다.
| 진행자 |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성가()번()절을 노래하겠습니다. /
성호경



대림 제2주일(12월 10일) 세상과 주님을 잇는 다리, 세례자 요한(마르 1,1~8)



메시아를 고대하며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마르 1,4-5)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주님께서는 성탄축일에 오시고, 우리 매일의 삶 속에 오시며, 그리고 세상 마지막 날 영광스럽게 오실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가르치고 물로 세례를 주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권고합니다. 성령과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메시아를 고대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며 희망입니다. 아드님께서 이루실 일을 세상에 보여줍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출처: 서울주보, 2014. 12. 7.)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93번 “임하소서 임마누엘” 1-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아니 계신 데 없이 곳곳에 계신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마르코 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2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보라, 내가 네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3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하고 기록된 대로, 4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5 그리하여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6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7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자격조차 없다. 8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보라, 내가 네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마르 1,2)

나는 주님과 세상을 잇는 ‘다리’입니까 아니면 ‘벽’입니까?

†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자격조차 없다.” (마르 1,7)

‘너’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을 위해 나의 몸을 굽힌 경험은 있습니까?

| 진행자 |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위와 아래를 잇게 하든, 이웃과 이웃을 잇게 하든 중간자는 어디서건 ‘다리’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참다운 중간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끔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리는 중간자의 모습을 봅니다. 참모로 내세운 이가 고작 광대 짓만 하는 때도 있고, 광대로 사명을 부여받은 이가 참모 행세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정도는 어쩌면 양호할지도 모릅니다. 위와 아래를 잇는 사명을 부여받은 중간자가 스스로 뒤편 자리를 꿰차거나, 이웃과 이웃을 잇게 한다면 정작 자기 자신을 더욱 드러내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자리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선구자나 선각자로서 나서되, 결코 주님의 위치를 감히 넘보지 않는 겸손 안에서, 그는 주님과 세상을 잇는 ‘충실한 다리’였습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 진행자 | : 한 달 동안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 진행자 |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 진행자 |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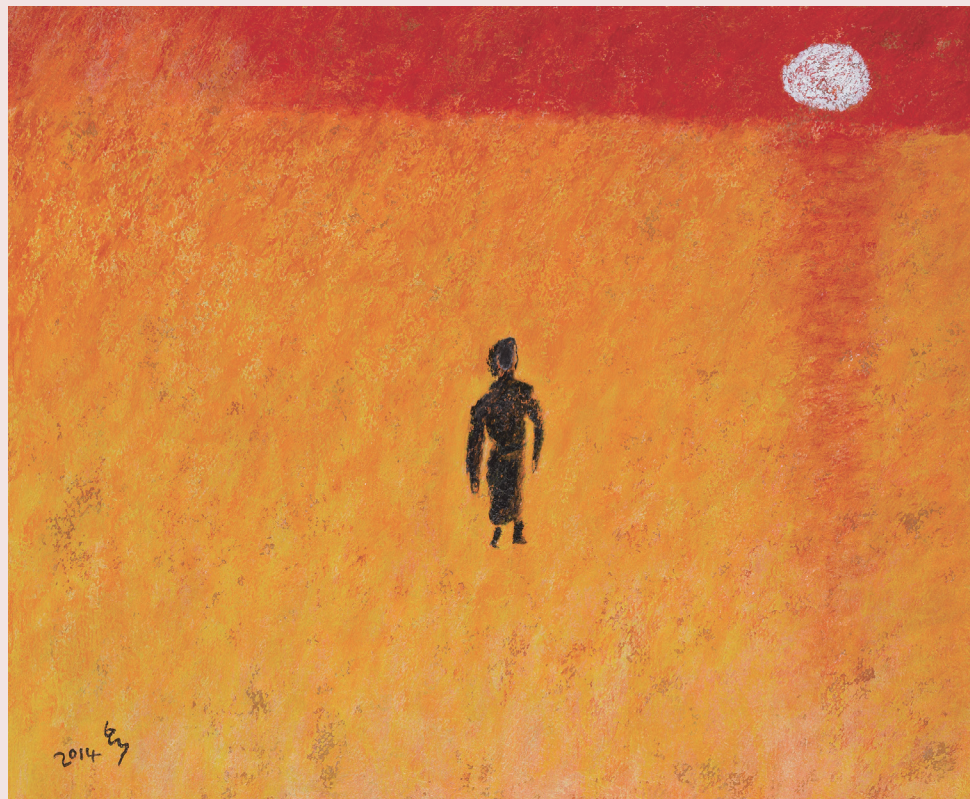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93번 “임하소서 임마누엘”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대림 제3주일(12월 17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세례자 요한(요한 1,6-8.19-28)



빛의 증인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요한1,6-8)

오늘 복음은 세례자 요한의 증언을 전해 줍니다. 그는 앞으로 오실 주님을 백성들에게 예고하기 위해 파견된 사람입니다. 영원한 빛의 증인이 된 그는 어둠 속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우리를 찾아오시는 가장 큰 희망이신 분을 알려주었고,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어 오시는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이루실 일을 세상에 보여줍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출처: 서울주보, 2014. 12. 14.)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96번 “하느님 약속하신 분” 1-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아니 계신 데 없이 곳곳에 계신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요한 복음 1장 6절에서 8절.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6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7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8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19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을 때, 20 요한은 서슴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하고 고백한 것이다. 21 그들이 “그러면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하고 묻자, 요한은 “아니다.”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그 예언자요?” 하고 물어도 다시 “아니다.”하고 대답하였다. 22 그래서 그들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하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23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



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24 그들은 바리사인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25 이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세례는 왜 주는 것이오?” 26 그러자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물론 세례를 준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27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28 이는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르단 강 건너편 베타니아에서 일어난 일이다.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시다.

†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요한 1,23)

부정과 불의 등의 혼탁한 상황에서 주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주님의 ‘소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 진행자 |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예나 지금이나 옳은 소리를 하는 사람은 미움과 따돌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도자는 자기 귀에 거슬리는 역겨운 비판의 소리까지 들으려는 자세

를 가져야 합니다. 지도자들은 비판의 소리에 겸허하게 귀 기울이고, 달콤한 소리만을 하는 이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로 혼란한 이 시기에, 세례자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절대 나서지 않되 ‘소리’의 역할에만 충실한 진정한 예언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이 나라를, 이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 소리의 역할을 충실히 하며 혼탁한 이 세상에 빛을 증언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 진행자 | : 한 달 동안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 진행자 |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 진행자 |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96번 “하느님 약속하신 분” 3-4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신명나는 소공동체

장승포성당 구역부장 박선옥(요세파)



“찬미예수님 ^^♡

장승포성당이 2023년을 맞이하여 본당 설립 70주년이 되었습니다. 하여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쉬시고 있는 쉬는 교우들을 각자 한 분씩 모셔 오기, 예비신자도 덩달아 모셔 오기, 그리고 우리 성당 역사 바로 알기 위하여 특별한 신부님을 모셔 특강 듣기 등.

그런데 아무래도 이벤트가 활성화되려면 소공동체와 손잡고 각 반에서 많이 떠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희한하게 우리 본당은 평소엔 너무 조용한데, 본당의 날이나 바자회 등 큰 행사가 열리면 정말 폴폴 뭉쳐 하나 되고 참말로 신명 나



게 일을 해냅니다. 소공동체장들의 선두에 따라 반원들이 하나 되어 움직여주시는 덕분이죠. 그리고 보니 폴폴 잘 뭉치는 데는 이유가 있었네요! 코로나 전에는 소공동체장들께서 선두에 서서 반원이 함께 모여 매주 주일 점심 제공을 했습니다. 한 끼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며칠 전부터 배추 다듬어 김치 담고, 동그랗게 모여 앉아 나물도 다듬고 그 속에서 이런저런 오가는 이바구들! 참 신명 났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하하 호호 웃음 속에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만나의 집(2001년 개장)을 만들어 주신 이 요셉 신부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 생기있고 신이 났던 그대로 다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어느 본당 할 것 없이 코로나로 많이 침체되어 있고 우리 본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다시금 힘을 내서 으쌰으쌰 주일날 밥도 하고, 맛 나는 거 많이 해서 모여서 나누어 먹고 지나가는 분들도 와서 함께 식사하고 이러다 보면 해 뜰 날 오겠죠. 하느님 사업은 다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삶 안에서 체험으로 느껴보니 말이죠.

감사합니다.”



「교회의 성사들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치유의 성사(고해성사, 병자성사), 친교와 사명을 위한 봉사의 성사(성품성사, 혼인성사)로 구분된다. 이 일곱 성사는 그리스도인 생활의 중요한 모든 시기에 관련된다. 모든 성사는 “마치 자신들의 목적을 향하듯”(성 토마스 데 아퀴노) 성체성사를 지향하고 있다.

해설

교회의 일곱 성사는 입문 성사, 치유의 성사, 봉사의 성사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세례성사만이 아니라 견진성사와 성체성사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교회의 입문이 완결된다. 병자성사와 고해성사는 치유의 성사로서 서로 연관되어 있다. 구약뿐 아니라 예수님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병은 죄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였다. 혼인성사와 성품성사도 서로 비슷한 면이 있다. 어떤 면에서 신랑과 신부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듯이, 성품을 받는 이들도 부모를 떠나 교회와 한 몸이 된다.

용어

입문성사

세례성사와 견진성사와 성체성사는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는 성사로서 단일성을 이룬다. 이 세 성사를 다 받아야 비로소 완전한 하느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성전이 된다는 말이다.

성체성사를 지향하다

성체성사야말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그리하여 삼위일체 하느님의 친교에 드는 성사 중의 성사다. 다른 모든 성사는 성체성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파스타 신비에 참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리스도교 입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교회 입문은 그리스도교 생활의 기초들을 놓은 성사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곧 세례성사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신자들은 견진성사로 굳건하게 되며, 성체성사로 양육된다.

해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를 받음으로써 교회의 일원이 된다. 그러므로 유아 세례가 아닌 어른 입교에서는 이 세 성사를 함께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용어

그리스도교 생활의 기초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곧 입문 성사가 그리스도인 생활의 기초를 놓지만, 특히 세례성사는 그리스도인 생활 전체의 기초가 된다. 이 성사로써 성령 안에 사는 삶으로 들어가고, 다른 성사들을 받아 하느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

*한님성서연구소에서 출판한 [말씀으로 익히는 가톨릭 교회 교리 문답]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향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